

# 협회소식

## NEWS

### 본회, '99년 임·직원 연수회 개최



본회는 지난 5월 13·14일 이틀간에 걸쳐 임원, 지부(회)장 및 각 지부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제 19차 '99년 임·직원 연수회를 성황리 개최하였다.

200여명의 전국 양돈인들이 참석한 이날 연수회에서 본회 회원들은 ▲돼지콜레라 100% 예방접종과 공동방역사업에 솔선수범할 것 ▲돼지콜레라 박멸을 위한 자금모금에 앞장설 것 ▲IMF의 한파 속에서 소비자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위생적이고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에 힘쓸 것 ▲협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양돈인의 권익신장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또한 참가자들은 자조금 제도의 정기국회 입법을 위한 양돈인들의 적극참여 결의문과, 돈콜레라

박멸에 앞장설 것과 사료업체가 양돈인들에게 사료비의 0.5%에 해당하는 돼지콜레라 박멸 자조금을 징수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3가지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농림부 김남철 축산경영과장이 "한국양돈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하였으며, 본회 한백용 부회장은 "양돈협회의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양돈협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북대 양병우 교수는 "21세기 지식산업과 양돈업"에 관한 강의를 하였다.

한편 본회 최상백 회장은 입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돼지콜레라 백신접종이 100%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자조금 제도의 법제화도 기필코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본회, 사료업체에 돼지콜레라 박멸 사업 적극 동참 촉구 결의

#### -비협조 사료업체 규탄·불매운동 전개 등 강력 대처키로

본회는 돼지콜레라 박멸사업 참여에 미온적인 사료업체에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비협조하는 사료업체에 대해서는 불매운동 전개 등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5월13일과 14일 개최된 제19차 임원·지부장 연수회에서 임원·지부장들은 돼지콜레라 박멸 사업 사안의 시급성과 양돈산업의 앞날이 돼지콜레라 박멸에 달려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공동 운명체인 사료업체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분개하면서 사료업체들이 박멸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4단계 방안을 추진해나갈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임원·지부장들이 만장일치로 결의한 4단계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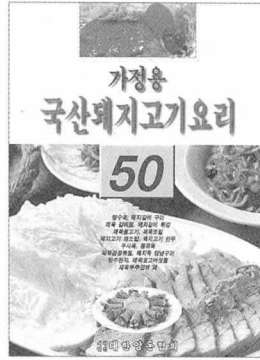
▲제1단계 : 각 도협의회장과 소속 지부장들이 공동 명의로 당해 도내에 소재한 배합사료 회사에 돼지콜레라 박멸 사업을 위한 자조금 거출 협조 요청문서를 발송한다. 각 도협의회장들은 각 사료회사로부터 회신을 받고 돼지콜레라 박멸사업에 비협조적인 회사와 회신이 없는 회사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할 전국 임원·지부장 비상대책연석회에 보고한다.

▲제2단계 : 비협조 사료업체에 대하여는 전국 양돈인의 이름으로 이를 규탄하고, 규탄 유인물 5만장을 제작하여 전국 24,805호의 양돈농가와 축산관련 기관·단체·언론기관 등에 배포한다. 또한 규탄 플래카드 500개를 만들어 전국 시군별로 2개 이상 게시하고, 지부 사무실과 축산관련기관에 게시한다.

▲제3단계 : 비협조 사료업체의 사료에 대한 품질 검사와 사양시험을 통해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고, 현재 IMF 환란 등으로 어려운 소규모 양돈장에 보다 높은 이자를 적용하는 외상판매(여신) 실태를 공개 규탄한다. 또한 이와같은 사료업체에 대하여는 사료 불매운동과 사료 운반차량의 소독 상태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이를 공개한다.

▲제4단계 : 현재의 복잡하고 불투명한 사료 제조·유통의 구조조정을 통해 거품을 제거한 사료가격 변경요인 등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며, 자가 배합사료 체제로 적극 전환토록 추진한다.

## 본회, “가정용 국산 돼지고기 요리 50” 제작·배포



본회는 지난 5월초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손쉽게 돼지고기 요리를 할 수 있도록 “가정용 국산돼지고기 요리 50” 요리책자 6,000부를 제작하여 각 지역 돼지고기 직판장과 정육점, 요식업소, 지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책자는 4X6배판 84쪽 분량으로 탕수육과 제육불고기, 우사육, 돼지갈비구이, 돼지족 양념구이 등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50가지의 돼지고기 요리방법이 재료와 함께 원색 화보로 꾸며져 있다. 또한 이 책자에는 ▲전문가가 말하는 돼지고기 ▲장수의 비결,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스테미나와 피로회복에 좋다 ▲돼지고기, 단백질과 비타민의 보고(寶庫) ▲콜레스테롤 함량이 낮은 돼지고기 ▲한의학적으로 본 돼지고기의 효능 ▲한의학적으로 본 돼지고기의 영양학적인 측면과 우수성도 다루고 있다. 기타 돼지고기 구입과 보관요령, 부위별 요리방법, 국산·수입 돼지고기 구분방법 등도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본회는 수입개방화 시대에서 국산 돼지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홍보 활동을 꾸준히 벌여 나가기로 했다.

## 본회, “월드 포크 포커스 '99” 교육 개최 계획

본회는 한국양돈연구회와 공동(미국곡물협회 후원)으로 5월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양돈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인 “월드 포크 포커스 '99(World Pork Focus '99)”를 개최

한다.

이번 교육에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교수인 M.Todd See 박사와 Theo Van Kempen 박사가 강사로 나서 ▲미국의 양돈산업 현황과 전망 ▲새로운 양돈기술 개발 및 활용 추세 ▲미국의 양돈 계열화 현황과 향후 전망 ▲사료급이 시스템 ▲미국 양돈생산자 네트워크 현황과 전망 ▲사육관리 시스템 ▲농장 경영기록 및 성과지표 분석 ▲예방적 돈군 건강관리 시스템에 대해 교육하고, 질의 및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교육 참가비는 15만원(중식 및 교재비)이며, 전 교육기간 이수가 어려운 경우 필요한 당일 교육(당일 참가비 4만원)도 가능하다. 교육 희망자는 5월 18일까지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교육문의: 한국양돈연구회(전화 02-578-1411)

## 본회, 도체등급판정 수수료 징수 반대 의견 제출

### -“공청회 참석자 및 양축농가 의견 전혀 반영 안돼”

본회는 농림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돼지도체등급판정 수수료로 돼지 1두당 300원씩 부과하려는 내용으로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99.4.12)한데 대해 이를 반대하고, 정부가 계속 등급판정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본회는 지난 4월22일 농림부에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본회는 의견서에서 농림부가 등급판정수수료를 내년부터 징수하려고 입법예고한데 대해 “이는 안성에서 개최되었던 공청회 참석자와 양축농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모든 농산물의 등급판정에도 생산자인 농민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견서는 “아직도 등급판정제도가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고, WTO체제에서 직접보조

가 없어지고 있는 이때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수출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등급판정을 기계화 또는 운영의 묘를 살려 경비를 절감하고, 현재와 같이 계속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농림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등급판정 수수료를 소는 1두당 1,500원, 돼지는 300원씩 징수하는 내용으로 동 법 시행규칙을 4월12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 제1검정소 “제4회 구입자 보은의 날” 행사 개최

### -5월20일 주침 통해 F1 등 8마리 경품 증정

본회는 지난 5월20일 제1종돈능력검정소(이천)에서 “제4회 구입자 보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검정돈 최다 구입자(경기 화성 박성원씨, 경북 영주 김익현씨, 강원 원주 주주호씨)와 최다 구입지부(홍성지부, 화성지부, 영주·봉화지부), 최고가 구입자(당진 AI센타 이제만씨, 파주 AI센타 장석철씨)에 대한 시상이 있었으며, 이날 경매에 참석한 검정돈 구입농가들에게 추첨을 통해 순종 암·수, F1 등 8마리를 경품으로 증정하였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축산기자재 추첨 증정과 기념품, 중식, 다과가 제공되었다.

## 도협의회, 지부 소식

### 경기도협, 돼지콜레라 박멸대책 논의

경기도협의회(회장 : 윤대열)은 지난 5월3일 본회 한백용 부회장, 윤대열 경기도협의회장 및 경기 지역 각 지부장 및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경기도협의회에서는 돼지콜레라 박멸대책과 경기도내 신설가능지구 파악 및 실태조사, 공동방역사업단 운영 및 신규참여에 관한 논의를 하였다.

또한 협의회는 산지자돈 시세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축협관계부서에 통보하고, 공동방역사업단과 관련해서 장비지원에 대한 자부담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 안성공방단, 백신접종 불량농가 40호 특별관리

### -4월말까지 관내 양돈농가 100% 예방접종 실시

본회 안성지부와 안성양돈공동방역사업단(지부장, 단장 이광우)은 돼지콜레라를 조기에 박멸하기 위해 백신접종 불량농가 40호를 특별관리 하는 한편, 4월말까지 관내 232농가가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안성공방단은 이를 위해 1월13일부터 4월9일까지 관내 232농가중 197농가의 돼지 2,052두에 대해 혈청검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 항체가가 80% 미만인 농가가 40호로 나타났다.

나머지 35농가는 채혈 대상돈이 없거나 사육 중단상태에 있는 농가들이었다. 검사결과는 85.8%(1,761두)가 양성으로 나타났고, 14.2%(291두)가 음성으로 나타났다.

안성공방단은 항체가 80% 미만 40개 농가를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하고, 4월21일부터 28일까지 100% 백신접종을 하도록 시술지도 및 점검을 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5월10일부터 21일까지 채혈을 해서 항체검사를 하고, 매일 1회 이상 농가를 방문해서 계속 지도 및 점검을 해나가기로 했다. 1차 미채혈농가 35개소는 4월29일부터 5월8일까지 채혈을 해서 항체검사를 하기로 했다.

## 이천시지부, 창립총회 개최

### -지부장에 이강희씨 선출



이천 소재 양돈농가 25명은 지난 4월29일 11시 설봉호텔 에머랄드룸에서 본회 한백용 부회장, 노영한 전무, 진길부 도드람양돈조합장, 오인환 이천시 축산행정과장 등 내빈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양돈협회 이천시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김세현 위원장(이천시지부 창립준비위원회, 전 이천양돈협의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양돈인이 합심단결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에서 전국 양돈인과 뜻을 같이하여 양돈산업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 이천시지부를 창립하게 되었다”고 지부창립취지를 밝혔다.

한백용 본회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천시지부 창립을 계기로 돼지콜레라 박멸 등 양돈업계의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서 양돈산업이 한차원 더 발전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천시지부는 이날 정관 제정(안)을 승인하고, 이강희씨를 초대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이천시지부의 창립으로 본회 시군 지부·지회수는 81개로 늘어났다.

## 평택지부 “평택 셀렌포크” 직판장 개업 및 시식회 개최

본회 평택지부 회원들이 설립한 평택축산영농조합법인(대표 : 이성균)은 5월12일 평택시 팽성읍

평성농협 미곡처리장 농산물 직매장내에서 300여 명의 내빈과 지역 양돈인, 소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셀렌포크” 직영판매장을 개업하고 시식행사를 가졌다. 동 법인은 5월20일 건국대에서 돈육의 고품질화를 위한 브랜드육 세미나도 개최했다.

## 마산지구지부, 돼지콜레라 근절 결의대회 및 체육대회 개최

마산지구지부(지부장 : 이용모)는 지난 4월22일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 모든 양돈농가들을 대상으로 한 돼지콜레라 근절 결의대회를 마산시 합포구 삼진공설운동장에서 성대히 개최하고, 양돈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양돈인 모두가 한뜻으로 돼지콜레라를 박멸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이날은 지부회원들의 친목 체육대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 김해지부, 창립 25주년 기념행사 개최

본회 김해지부(지부장 : 박삼근)는 지난 5월19일 김해공설운동장에서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회원과 가족, 특별회원, 내빈, 축산관련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기념식과 함께 회원가족 친선체육대회가 펼쳐졌다.

## 충주지부, 허 현 지부장 선출



허 현

(충주지부 지부장)

충주지부(지부장 : 허현)는 지난 3월18일 충주시 교현1동 소재 충주지부 사무실에서 회원 22명중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장용기 지부장의 후임으로 허 현 씨를 새 지부장을 선출하였다.

또한 부지부장 및 총무에 이진석 씨, 감사에 이

제영씨, 이사에 신기철, 한창득, 장용기 씨를 선출했다. 허 현 지부장은 현재 본회 이사를 겸임하고 있으며, 충주시 주덕읍에서 미광농장을 경영하고 있다.

## 광주·장성·담양지부, 차장곤 지부장 선출



차장곤

(광주·장성·담양지부)

광주·장성·담양지부(지부장 : 차장곤)는 지난 3월25일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소재 지부사무실에서 회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고, 최희태 지부장의 후임으로 차장곤씨를 선출하였다.

또한 부지부장에 국제근씨, 감사에 오재곤, 조덕훈씨, 총무에 임승헌 씨를 선출했다.

## 보은지부, 김영태 지부장 선출



김영태

(보은지부 지부장)

보은지부(지부장 : 김영태)는 지난 4월말 지부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주진홍 지부장 후임에 김영태씨를 새 지부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김정열, 총무에 조우영 씨를 선출했다.

김영태 신임 지부장은 현재 보은군 탄부면 덕동리에서 태성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양돈**

